

이광조 “모든 게 두려웠지만...44년 노래 인생 엑기스 뽑았죠”

기타리스트 함춘호 손잡고 어쿠스틱 앨범 발표...히트곡 망라
“발라드, 때론 지겨운 느낌도...빅밴드 재즈 무대 해보고 싶어”

“내가 이런 소리를 냈으므로 나 자신이 얼마나 위안을 받느냐에 주안점을 뒀어요. 소리가 뜻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1980년대를 풍미한 가수 이광조(69)가 오는 22일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함춘호와 손잡고 어쿠스틱 앨범 ‘올드 앤드 뉴’ (Old & New)를 낸다.

음반에는 ‘사랑을 잃어버린 나’ (1985),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1985), ‘세월 가면’ (1987), ‘우리 이제 잊기로 해요’ (1990) 등 대중에게 익숙한 발라드와 신곡 ‘우리 떠나가요’까지 총 10곡이 함춘호의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와 함께 담겼다.

음반 재킷 이미지의 글씨는 후배 가수 남궁옥분(63)이 써 줬다.

이광조는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쿠세(스관) 박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음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확하게 내려고 노력했다”며 “44년 노래 인생의 엑기스를 뽑아냈다”고 말했다.

1977년 ‘사랑의 바람’으로 데뷔한 이광조는 트로트와 포크 위주의 가요계에 감정선 진한 발라드로 솔한 히트곡을 남긴 가수다.

그는 이번 음반 작업을 두고 “손끝에서 울리는

마지막 감정 한 방울까지도 녹여내야 하는 건데, 아무렇게나 부르면 노래에 대한 모독”이라며 “오랫동안 들어도 질리지 않도록, 너무 옛날 느낌이 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 음반 작업은 사십년지기이자 아홉 살 어린 동생인 함춘호가 수년 전 ‘한번 함께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함춘호는 1981년 이광조의 ‘저 하늘의 구름 따라’ 음반에 참여하면서 세션 활동을 시작한 인연이 있다.

이광조는 “사실 모든 게 두려워서 노래 부르는 것을 관두려고까지 했다”며 “그 전에 무언가 하나 남겨야 할 것 같아 춘호에게 몇 년 전 그 이야기가 아직 유효하냐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나이도 있다 보니 내가 지금 나와도 될까 걱정도 많이 했지요. 나이 70 가까이 돼서 판(음반)을 하나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려면 감정이 깊이 섞인 음악을 해야겠다고 해서 함춘호와 일대일로 작업을 했지요.”

그는 “옛날에는 목이 툇툇해서 뭐라도 불러주면 됐는데, 이제는 녹음하러니 마이크 앞에서 홀로 외로이 싸우는 것 같다”며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들에게 ‘듣기 싫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나 자신도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고 되돌아봤다.

이번 음반은 ‘감정이 깊이 섞인 음악’이라는 그의 설명 그대로다.

그렇지 않아도 이광조의 주요 히트곡을 가로지

르는 감정선은 ‘쓸쓸함’. 여기에 함춘호의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더해지면서 가슴을 후벼파는 감정의 진폭은 배가 됐다.

이광조는 “예전 노래를 다시 녹음한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쉬워 보이지만, 과거에는 악단과 함께했다면 이번에는 오로지 기타밖에 기댈 곳이

없었다”며 “내가 떨면 그 찰나의 떨림이 오히려 다 녹음됐다. 함춘호와 프리젠프로 녹음한 곡이 많아서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었을 시절 원곡을 녹음할 때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불렀다”며 “하지만 지금은 ‘쓸쓸함’이라는 감정이 아주 내 몸에 붙은 것처럼, 내 몸의 감각이 된 것처럼 불렀다”고 부연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노래로 전해 주니 그 자체로 울림이 있다고 합디다. 미국에서 어느 운전기사가 제 목소리가 너무나 슬픈데 한편으로는 화려해서 아파대요.” (웃음)

가장 어려웠던 노래를 물어보니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한다. 지난 세월 무수히 무대에서 들려졌을 그의 히트곡이라는 점에서 의외다.

그는 “이 노래는 30대 중반 시절에도 ‘나중에 늙어서 부르라고 하면 못 부르겠다’고 생각하던 노래”라며 웃었다.

내년이면 고희(古稀)를 맞는 그의 노래 인생을 함께한 장르는 발라드다. 그에게 발라드란 어떤 의미냐고 하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광조는 “발라드가 지겨운 느낌도 든다”며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음악을 하고 싶다. 빅밴드, 브라스 밴드와 함께 재즈 공연을 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그우먼 겸 가수 안소미
미니음반 ‘그대라는...’ 발표

여진구·문가영, 멜로 호흡
판타지드라마 tvN ‘링크’ 서

개그우먼 겸 가수 안소미가 16일 새 미니음반 ‘그대라는 한 사람’ (사진)을 발표했다고 비엔미디어가 밝혔다.



동명의 타이틀곡은 안소미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노래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다. 안소미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수목곡 ‘아시나요’는 2005년 발표된 이재은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

이번 음반에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동영이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기타리스트 한철중·강신혁, 베이시스트 배영근·이종민, 피아니스트 탕 등이 힘을 보탤다.

안소미는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드라이 클리닝’, ‘불편한 진실’, ‘위대한 유산’, ‘놈놈놈’ 등의 코너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연합뉴스



여진구(왼쪽)와 문가영

배우 여진구와 문가영이 tvN 새 드라마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이하 ‘링크’)에서 호흡을 맞춘다.

tvN은 내년 상반기 방영될 ‘링크’에 여진구와 문가영을 캐스팅했다고 16일 밝혔다.

‘링크’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의 감정을 공유하게 된 남자가 그녀의 온갖 기쁨, 슬픔, 아픔을 함께 느끼며 벌어지는 감정 공유 판타지 멜로이자 흥미로운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다. /연합뉴스

웨이브 올해의 드라마 ‘모범택시’...예능 ‘런닝맨’

VOD 시청 시간 순위 발표
미국 드라마 1위 ‘왕좌의 게임’

올 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구독자가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는 ‘모범택시’, 예능은 ‘런닝맨’이었다.

웨이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웨이브 주문형비디오(VOD) 시청 시간을 분석한 ‘2021 웨이브 어워즈’를 16일 발표했다.

웨이브 어워즈 드라마 부문에는 SBS ‘모범택시’가 1위에 올랐다. SBS ‘펜트하우스’ 시즌2와 시즌3이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SBS ‘윈도우먼’과 MBC ‘검은태양(무삭제판)’, KBS ‘경찰수업’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방송사 동시 방영이 아닌 웨이브에서만 공개된 오리지널 시리즈 차트에는 발기부전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룬 ‘유 레이즈 미 업’, 정치풍자극 ‘청와대로 간다’가 순위권에 들며 주목을 받았다.



예능 부문에서는 SBS ‘런닝맨’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시청 예능으로 뽑혔다. 뒤를 이어 MBC ‘나 혼자 산다’, MBC ‘놀면 뭐하니?’, MBC ‘무한도전’, SBS ‘미운 우리 새끼’ 등 장수 프로그램들이 순위권에 들었다.

신규 예능으로는 MBC ‘심야괴담회’가 9위,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 15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시사교양 부문 1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차지했고, 2위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3위는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선정됐다.

해의 메이저 스튜디오의 작품들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미국 드라마 1위는 HBO ‘왕좌의 게임’이 차지했고, ‘왓치맨’, ‘유포리아’, ‘언더딩’, ‘메이 오브 이스트 타운’ 등 HBO의 작품들이 상위권을 지켰다.

아시아 드라마 차트를 선점해온 중국 드라마 부문은 로맨스 판타지 장르물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중국 드라마 1위는 전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다시 만난 운명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유리미인살’이 차지했고, 무협 드라마 ‘진정령’이 2위에 올랐다.

영화 카테고리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 8개가 모두 차트를 채우며 장기 흥행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